

# “지열발전 상용화 절차 따라 중단”

### 정승일 산업부 차관, 포항 지진 관련 입장 발표 수행기관이 지난 2010년 12월 상용화 시작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북 포항 외에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산업부 출입기자단이 이번 정부연구단의 조사 결과가 포항 외에 다른 지열발전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지열발전 기술개발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물음에는 ‘추가적인 지열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지열발전 관련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신규) 사업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항시와 협조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감사원에 청구된 국민감사 이외에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 선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는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5년간 2257억원을 들여 포항 흥해 지역에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이중 국비는 718억원 투입한다.

“흥해 특별재생사업 이외에 포항시민에게 별도로 보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게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연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지진(리히터 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장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를 위해 실시한 수리자극(Hydraulic Stimulation)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촉발했다”면서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했고, 누적되면서 포항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연구단의 조사에 함께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도 “지열발전소를 위해 투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 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15일 발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건의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규모 5.8)에 이어 한국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했다. 118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845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했다’는 의견과 ‘자연 발생했다’는 의견이 대립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이진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를 위한 물 주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연구단을 작년 3월 구성했다. 지금까지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해왔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 기술개발 상용화 사업은 넥스지오 컨소시엄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 2010년 12월 시작했다. 넥스지오는 지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항·강릉·석모도·제주도·울릉도 등 5개 후보지를 발굴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포항이 최종 선정됐다.

201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2012년 9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7년 11월 지진이 발생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넥스지오를 비롯해 포스코·지질자원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이노지오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했다.

/뉴스

##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원사, 모범상공인 표창 수상

2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1층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상공인·모범관리자 분야 산자부장관 표창 4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2명 각각 수상했다.

‘상공의 날’은 우리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상공인들을 매년 포상하는 자리이다. 모범상공인 분야에서는 정음 (주)세움 이석길 사장이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부안 (주)수파이프 김호서 대표이사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모범관리자 분야에서는 정음 (주)하림 정음공장 이재선 공장장, 대우전자 부품(주) 이석호 부장, 고창 참바다영 어조합법인 임관수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주)크린앤사이언스 이남규 상무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정음=김대환기자



고창군 무장면 선운산농협장이 20일 농협 본 회의장 2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소외받는 조합원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고창군 선운산농협장이 취임식 성황리 열려

고창군 무장면에 본점을 둔 선운산농협장이 20일 농협 본 회의장 2층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김만기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차남준, 임정호 군의회 의원 등 3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4대 선운산농협장에 취임한 김기욱(50) 조합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양환 전 조합장님께서 잘 이끌어 오신 농협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연 뒤 “삶 자체를 농업인으로 살아 왔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욕심은 버리고 상임이사와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오직 조합원과 농협만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산농협은 무장면에 본점과 공음과 아산에 각각 지점을 갖춘 고창군에서는 관할면적이 가장 넓은 농협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도경영을 실현하는 농협이다.

/고창=김영식기자

## 곤충산업 발전에 ‘맞손’

장수군-농촌진흥청 MOU체결

장수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이진취 부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우량사과량 축적 곤충 홍보관 공동 운영을 통한 곤충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제고, 농가 기술지도 등을 통한 신규농가 일자리 창출, 기존농가의 역량강화, 곤충 질병 현장 관리 등으로 곤충산업을 장수군 제2의 농업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장영수 군수는 “오늘 곤충산업 협약을 통해 장수군 산업곤충분야 발전의 새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곤충산업이 미래 신소득 창출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전북은행, 민방위의 날 맞아 화재대피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일 제 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고층건물 화재상황을 고려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임직원 및 직장민방위대,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화재대

피 훈련은 화재발생 전파 및 신고, 비상계단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에 중점을 두고 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고객 및 임직원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 및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했다.

## 이강래 도공 사장, 전북 방문...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귀 기울여

‘따뜻한 동행’ 실천에 앞장서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20일 전북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본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장은 이날 전북본부와 함께 하는 CEO 공감 토크를 통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작업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교량 및 작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휴게소 먹거리 표준화 및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청렴도 향상을 전 직원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선포한 5대 국민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14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 서비스 기업 달성을 위해 안전, 소통, 신뢰, 선도, 혁신 등 5대 국민 약속과 20대 실천 과제를 선포한 바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